

한자어 접미사 ‘場’과 ‘所’의 의미 분석과 장소 파생어의 특징

도원영*

목 차

1. 머리말
2. ‘場’과 ‘所’의 분석
3. ‘場’과 ‘所’ 파생어의 특성
4. 맺음말

국문초록

지금까지 한자어 접미사에 대한 연구에서 형태론적 지위나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반면, 접미사의 의미에 천착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동일한 의미 영역을 형성하는 일련의 한자어 접미사와 그 파생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어사전 등의 어휘 자료를 통해 일음절 한자가 결합한 단어 목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코퍼스나 빅 데이터를 통해 미등재어나 신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자어 접사 ‘場’과 ‘所’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뒤 이들과 결합하는 파생어의 특성을 어휘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場’과 ‘所’는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 중에서 생산성이 높으며 의미 기능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한 접미사이다. 먼저 ‘場’과 ‘所’의 의미를 분석하고 명사와 접미사의 용법을 구분한 다음 각 접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의 의미 자질, 즉 [장소], [시설], [기관]으로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변별됨을 증명하였다. 이어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파생어 목록과 신문 코퍼스에서 추출한 미등재어를 대상으로 어근의 어종과 자립성의 특징, 사용역별 특징을 밝혔다.

주제어 : 한자어 접미사, 장소, 어근, 파생어, 의미 분석, 어종, 어형성, 사용역, 어휘론

1. 머리말

본고는 일음절 한자 ‘장(場)’과 ‘소(所)’의 의미를 분석한 뒤 각 파생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의 어휘론적 특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어근과 접사의 성격을 아우르는 일음절 한자의 형태론적 성격과 의미론적 성격을 파악한 다음 이들이 결합한 어휘들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지금까지 일음절 한자어에 대해 그들의 형태론적 지위나 그 생산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즉, 접미사인지를 불완전 어근인지 등을 구분하거나 그 과정에 형성된 복합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제는 동일한 의미 영역을 형성하는 일련의 한자와 그 파생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사전 등의 어휘 자료를 통해 일음절 한자가 결합한 단어 목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세종 말뭉치나 ‘물결 21’과 같은 빅 데이터를 통해 미등재어나 신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 부류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일음절 한자어 접미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형태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장소를 뜻하는 일음절 한자류는 접미사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場’과 ‘所’와 관련된 파생어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의는 거의 없다.¹⁾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미사는 양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

1) 장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는 영업장소 접미사를 다룬 범기혜·도원영, 「‘占’, ‘房’, ‘館’의 의미 분석을 통한 영업장소 파생어의 특징」, 『한국어의미학』39(한국어의미학회, 2012)가 거의 유일하다.

지할 뿐만²⁾ 아니라 생산성과 조어력, 어근에 대한 선택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중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 접미사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되, 그 의미 기능이 비교적 단순하게 보이는 ‘場’과 ‘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³⁾⁴⁾

먼저 2장에서 ‘場’과⁵⁾ ‘所’의 의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먼저 사전류에 제시된 의미를 살핀 다음, 한자 자체의 의미를 통해 ‘場’과 ‘所’의 기본 의미와 범주적 용법을 검토하여 접미사 용법을 확정할 것이다. 특히 ‘場’과 ‘所’의 의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과 결합한 파생어의 목록을 작성하고 어근의 특성과 함께 접사의 다의성을 이해한 뒤 이를 통해 의미 자질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이들이 결합한 파생어에 대해 어종별, 어형성별, 사용역별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場’ 파생어와 ‘所’ 파생어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⁶⁾

- 2) 범기해·도원영, 앞의 논문에서는 <표대>와 <고대>에서 추출한 장소 접미사에 대해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장소 접미사 중 한자어 접미사가 두 사전 모두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 3) 어근에 후행하는 한자가 접미사, 접미 어근, 접미 명사 등 연구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본고는 장소를 뜻하는 후행 한자의 의미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형태론적 지위를 쟁점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명사 용법과 접미사 용법을 구분하는 정도로 다룬다.
- 4) 범기해·도원영, 앞의 논문에서는 영업장소를 뜻하는 한자를 대상으로 기존 논의에서 접미사로 보았는지 어근으로 보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장소	<표대>	<고대>	김창섭(1999)	예시
館	접미사	접미사	어근	영화관, 수족관, 명품관
房	명사	접미사	명사	노래방, 놀이방, 멀티방
商	접미사	어근	어근	고물상, 잡화상, 포목상
所	접미사	접미사	어근	이발소, 세탁소, 작명소
室	접미사	접미사	어근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院	접미사	접미사	어근	미장원, 안경원, 건강원
園	접미사	접미사	어근	단식원, 동물원, 수목원
場	접미사/명사	명사	어근	수영장, 볼링장, 경마장
店	접미사	접미사	어근	음식점, 백화점, 편의점

- 5) 시장의 의미를 지닌 ‘場’은 이미 자립 명사로서 그 용법이 확고하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을 뜻하는 ‘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2. ‘場’과 ‘所’의 분석

1) 의미 분석

본고에서는 한자 ‘장(場)’, ‘소(所)’의 의미를 <東亞漢韓大辭典>(동아출판사, 1982), <漢韓大辭典>(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辭源>(상무인서관, 1983)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1> 한자 ‘場’과 ‘所’에 대한 자전의 풀이

표제자	훈	東亞漢韓大辭典	漢韓大辭典	辭源
場	마당	①마당, 장소, 판, 일이 벌어진 자리. ②시험장. ③무대. ④밭. ⑤뜰판. ⑥신을 모신 곳. ⑦ 시장, 장터.	①제단 주위에 닦아놓은 평지. ②여름철에 채마밭으로 쓰이다가 겨울철에 마당으로 쓰이는 터. ③행사를 치르는 장소. ④어떤 영역. ⑤사슴이 서식하는 곳. ⑥시장, 장터.	①平整의場地(평평한 터) ②祭祀의場地(제사를 지내는 곳) ③指多數人聚集的處所, 也泛指某種領域(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어떤 영역을 가리킬 수도 있음)
所	바	①곳. ②지위, 자리, 위치. ③관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	①나무 베는 소리. ②처소, 곳. ③지위, 위치. ④관아나 공공 기관의 명칭에 쓰이는 말.	①處所(곳)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場’와 ‘所’는 모두 ‘장소, 곳’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 그 외 ‘場’은 ‘평평한 곳’, ‘넓은 곳’, 또는 ‘사람이 많이

6) 이영자, 「한·중 인칭접미사 ‘-자(者), -가(家), -인(人), -사(師)’의 의미 기능 고찰」, 『언어과학 연구』 47(언어과학회, 2008); 서정섭,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 『국어문학』 46(국어문학회, 2009); 김정룡, 「한자어 인칭접미사의 사회적 계층성 분석-직업성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7(한국어의미학회, 2012) 등 한중 대조 연구에서 인칭 접미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어의 한자어 장소 접미사는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의 대조 분석을 통해 한자 접미사의 의미 변화 양상과 조어론적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7) ‘所’는 원래 ‘나무를 베는 소리’의 기본 의미를 가진 한자인데 ‘처(處)’로 가차(假借)되다가

모이는 곳’ 등 파생 의미가 다양하다. 반면 ‘所’는 ‘관아’나 ‘기관’을 나타내는 의미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다의의 차이에 따라 ‘場’은 접미사로 쓰일 때에도 ‘所’보다 좀더 생산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⁸⁾

다음은 <표대>와 <고대>에 등재되어 있는 ‘場’과 ‘所’에 대해 살펴보자.⁹⁾

표 2. <표대>와 <고대>의 ‘場’

표제어	<표대>		<고대>	
	명사(장 ²⁸)	접미사(장 ⁴⁴)	명사(장 ⁶)	접미사
場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곳.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장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떤 일이 행해지는 곳.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표대>에는 ‘場’의 명사 용법과 접미사 용법을 모두 수록하였다.¹⁰⁾ <고대>의 경우 명사 용법만 인정하고 접미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두 용법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사전에서 자립 명사 ‘場’은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공통되게 인정하였다. 용례를 보면 ‘대화의 장’이나 ‘화합의 장’과 ‘경기장/운동장/수영장/시험장’ 등에 쓰인 ‘장’이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접미사 ‘場’ 앞에 붙이는 ‘공사, 경기, 경마, 사격, 시험, 운동’ 등은 모두 서술성 명사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곳’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에서는 이 두 가지 용법의 ‘場’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고 ‘場’의 접미사 용법을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場’은 형태·통사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場’에 대한 사전의 용례를 보자.

‘처소’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지금은 ‘나무를 베는 소리’의 뜻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서는 ‘처소’를 기본 의미로 보고 있다.

8) 한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의 의미로 확장되면서 동음이의어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9) 장소와 관련된 기본 의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대>에 제시된 물리학, 심리학, 생물학 등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는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10) 앞서 출간된 <우리말큰사전>과 <금성판 국어대사전>이 <표대>와 같이 ‘場’을 처리하였다.

- (1)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표대>
 ㄴ. ㉠갑론을박이 없다면 민주적 토론의 **장**이라고 할 수 없다. /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비판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장은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고대>
- (2) ㉠**공사장/경기장/경마장/사격장/시험장/운동장**. <표대>

(1)의 ‘場’과 (2)의 ‘場’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명사인 ‘場’은 특정한 구문 구조에서만 쓰인다. (1)에 제시된 예뿐만 아니라 코퍼스의 용례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예들이 모두 ‘NP의 장’ 또는 ‘-은/는 장’의 구성으로 쓰인다. (2)의 ‘場’은 서술성 명사 어근과 결합하고 있다.

둘째, ‘비판의 장’, ‘토론의 장’, ‘화합의 장’에 쓰이는 ‘場’은 모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공간을 말하지만 특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장소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문이 가능하다.

- (3)ㄱ. 갑자기 출연자 대기실은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화해의 장이 되었다.
 ㄴ. 회사 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노사가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
 ㄷ. 원로 배우들까지 무대에 섬으로써 아마추어와 전문가가 함께한 문화 예술의 장이 펼쳐졌다.

각 예문에서 ‘대기실’과 ‘강당’, ‘무대’라는 물리적 장소가 ‘화해’의 장소, ‘화합’의 장소, ‘문화 예술’의 장소로 표현되었다. 반면 (2)의 ‘장’은 ‘공사, 경기, 경마, 사격’ 등이 벌어지는 직접적인 공간을 말한다.

셋째, 명사 ‘場’과 접사 ‘場’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통사 구성으로 교체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속격 조사 ‘의’를 삭제하면 ‘화해장, 화합장, 문화예술장’으로 합성되는데, 이는 자연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접사 파생어의 용법과 다르다. 반대로 접미사 파생어를 속격 구성으로 바꾸어 보자. 이 역시 (1)의 예문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공사의 장, 경기의 장, 경마의 장, 사격의 장, 시험의 장, 운동의 장’ 등과 같은 통사적 구성으로 대체하면 비문법적이거나 어색하게

된다. 따라서 한자 ‘場’은 명사의 용법이 접사의 용법과 구별됨을 알 수 있다.¹¹⁾ 본고에서는 명사 용법의 ‘場’을 다루지 않고 접미사 용법의 ‘場’만을 다룬다.¹²⁾

한편 <표대>나 <고대> 모두 접미사 ‘場’의 의미는 무척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場’의 의미는 결합하는 어근의 특성에 따라 세분된다. ‘場’은 ‘강연장, 공사장, 유세장’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성 명사에 붙어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한편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처럼 특정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나 ‘고사장, 선착장, 연주회장’처럼 일정한 설비를 갖춘 곳의 의미도 띤다. 반면, ‘자기장, 전기장, 전자장, 중력장, 벡터장’ 등에서는 ‘자기’나 ‘전기’ 등의 작용이 미치는 일정한 ‘공간’이나 ‘영역’을 뜻한다.

이는 아래에서 제시된 여러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고대>에 등재된 ‘場’ 파생어 목록의 일부이다. 1500만 규모의 형태 분석 코퍼사인 ‘세종-민연 말뭉치’에서 빈도 10 이상인 표제어만을 추출하였다.¹³⁾

<표 3> <고대> 등재 ‘場’ 파생어 목록의 일부

강연장 (講演場)	볼링장 ({영}bowling場)	양어장 (養魚場)	집회장 (集會場)
개항장 (開港場)	분교장 (分校場)	양조장 (釀造場)	채석장 (採石場)
검사장2 (檢査場)	비행장 (飛行場)	연병장 (練兵場)	처리장 (處理場)
격전장 (激戰場)	사교장 (社交場)	연습장1 (演習場)	처분장 ({국}處分場)
결혼식장 (結婚式場)	사업장 (事業場)	연주장 (演奏場)	처형장 (處刑場)
경기장 (競技場)	사육장 (飼育場)	연주회장 (演奏會場)	촬영장 (撮影場)
경마장 (競馬場)	산란장 (産卵場)	연회장 (宴會場)	축구장 (蹴球場)
경매장 (競賣場)	샤워장 ({영}shower場)	영업장 (營業場)	취사장 (炊事場)
경주장 (競走場)	선착장 (船着場)	예식장 (禮式場)	취수장 (取水場)
고사장 (考查場)	세면장 (洗面場)	온천장 (溫泉場)	캠프장 ({영}camp場)
골프장 ({영}golf場)	세트장 ({영}set場)	운동장 (運動場)	탈의장 (脫衣場)
공사장 (工事場)	소각장 (燒却場)	유세장 (遊說場)	테니스장 ({영}tennis場)
공연장 (公演場)	수라장 (修羅場)	유치장 (留置場)	투우장 (鬪牛場)
공관장 (共販場)	수련장2 (修練/修鍊場)	음악회장 (音樂會場)	투표장 (投票場)

11) 따라서 <표대>의 명사 뜻풀이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대>는 접미사 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12)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대>에서 선행 어근과 합성하는 것으로 처리된 ‘場’ 복합어를 모두 파생어로 볼 것이다.

13) <고대>에는 총 348개의 ‘場’ 복합어가 등재되어 있다.

교육장2 (敎育場)	수렵장 (狩獵場)	자기장 (磁氣場)	파티장 ({영}party)場)
노역장 (勞役場)	수영장 (水泳場)	작업장 (作業場)	풀장 ({영}pool)場)
농성장 (籠城場)	스키장 ({영}ski)場)	장례식장 (葬禮式場)	해수욕장 (海水浴場)
당구장 (撞球場)	승강장 (升降場)	전시장 (展示場)	행사장 (行事場)
대회장 (大會場)	시험장 (試驗場)	전시회장 (展示會場)	헬기장 ({영}helicopter)機場)
도박장1 (賭博場)	쓰레기장 (쓰레기場)	정거장 (停車場)	헬스장 ({영}health)場)
도살장 (屠殺場)	아수라장 (阿修羅場)	정류장 (停留場)	형장1 (刑場)
도축장 (屠畜場)	야구장 (野球場)	정수장 (淨水場)	회견장 (會見場)
만찬장 (晚餐場)	야영장 (野營場)	주조장1 (酒造場)	회담장 (會談場)
매립장 (埋立場)	야적장 (野積場)	주차장 (駐車場)	회의장 (會議場)
박람회장 (博覽會場)	양계장 (養鷄場)	직매장 (直賣場)	훈련장 (訓練訓練場)
백사장 (白沙場)	양식장 (養殖場)	직판장 (直販場)	

2010년 이후 신문 자료에서 추출한 ‘場’ 파생어의 예이다. 기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 상당수 나타난다. 전부터 쓰던 말도 있고 최근에 생성되어 쓰이는 말도 있다. 그중 일부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010년대 신문 자료 추출 ‘場’ 결합 미등재어 목록

가압장(加壓場)	국감장(國監場)	번식장(繁殖場)	쇼장(show場)	엑스포장(expo場)	정치장(政治場)
강습장(講習場)	국궁장(國弓場)	보육장(保育場)	수거장(收去場)	연구장(研究場)	제과장(制料場)
개방장(開放場)	궁도장(弓道場)	보트장(boat場)	수능장(受能場)	연초장(煙草場)	제와장(製瓦場)
개소식장(開所式場)	급식장(給食場)	복싱장(boxing場)	수술장(手術場)	염색장(染色場)	조립장(組立場)
검색장(檢索場)	노동장(勞働場)	볼풀장(ballpool場)	수집장(收集場)	오찬장(午餐場)	조찬장(朝餐場)
검역장(檢疫場)	녹화장(錄畫場)	봉사장(奉仕場)	숙성장(熟成場)	요가장(yoga場)	축구장(足球場)
검투장(劍鬥場)	논술장(論述場)	분류장(分類場)	슛장(shoot場)	요리장(料理場)	족욕장(足浴場)
격납장(格納場)	대욕장(大浴場)	분회장(分會場)	스모장(sumo場)	웅변장(雄辯場)	종계장(種鷄場)
격돌장(激突場)	도약장(跳躍場)	빙고장(bingo場)	스쿼시장(squash場)	육상장(陸上場)	주총장(株總場)
견학장(見學場)	도예장(陶藝場)	빙벽장(氷壁場)	승마장(乘馬場)	입시장(入試場)	증류장(蒸溜場)
경빙장(競氷場)	독백장(獨白場)	빙상장(氷上場)	승하차장(乘下車場)	입찰장(入札場)	증식장(增殖場)
경선장(競選場)	라켓볼장(racket ball場)	삼림욕장(森林浴場)	시구장(始球場)	입출하장(入出下場)	집배장(集配場)
경작장(耕作場)	링크장(link場)	상담장(相談場)	시사회장(試會場)	재배장(栽培場)	집유장(集油場)
경쟁장(競艇場)	면접장(面接場)	상봉장(相逢場)	시승장(試乘場)	재연장(再演場)	집판장(集販場)
고시장(考試場)	모래장(一場)	선별장(選別場)	시약장(試藥場)	적응장(適應場)	집합장(集合場)
고백장(告白場)	발표장(發表場)	선양장(宣揚場)	썰매장(一場)	적출장(摘出場)	착유장(搾油場)
공방장(攻防場)	발효장(醱酵場)	설치장(設置場)	암벽장(巖壁場)	전용장(專用場)	참석장(參席場)
관찰장(觀察場)	배민턴장(badminton場)	소싸움장(一場)	양궁장(洋弓場)	전훈장(轉訓場)	출고장(出庫場)
구속장(拘俗場)	배팅장(batting場)	송금장(送金場)	양육장(養育場)	점프장(jump場)	출입국장(出入國場)
				접수장(接受場)	카약장(kayak場)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所’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는 <표대>와 <고대>에 제시된 ‘所’의 내용이다.

표 5. <표대>와 <고대>의 ‘所’¹⁴⁾

표제어	<표대>		<고대>	
	명사	접미사(-소 ²³⁾)	명사	접미사(-소 ²⁰⁾)
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장소’ 또는 ‘기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일부 서술성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일을 하는 장소나 기관 또는 시설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말.

‘所’의 경우 <표대>와 <고대>에서 모두 접미사로 보고 있고¹⁵⁾ 뜻풀이에도 큰 차이가 없다. 전자는 ‘장소, 기관’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고 후자는 ‘장소, 기관, 또는 시설’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사전에 제시된 예문이다.

(4)ㄱ. 강습소/교습소/사무소/연구소

<표대>

ㄴ. 연구소/휴게소/보건소/교도소/목공소/인쇄소/정류소/조선소/탁아소/요양소 <고대>

뜻풀이에 제시된 각 파생어의 유개념어를 살펴보면 ‘연구소, 보건소, 교도소, 요양소’ 등은 ‘~하는 기관’으로, ‘휴게소, 목공소, 정류소, 조선소, 탁아소’ 등은 ‘~하는 시설’로 풀이되어 있다.¹⁶⁾ 중요한 것은 ‘장소’라는 의미가 이 모든 파생어를 아우르는 상위의 의미라는 점이다. ‘所’에 선행하는 어근은 모두 명사이며, 대부분 서술성을 띤다.¹⁷⁾

아래는 ‘세종-민연 말뭉치’에서 어휘 빈도가 10 이상인 ‘所’ 파생어 목록이다.¹⁸⁾

14) <표대>의 ‘所’ 명사 중에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을 나타내던 ‘所’와 북한 의 기관명칭을 나타내는 ‘所’가 등재되어 있다. 이는 제외하였다.

15) 역시 <우리말큰사전>과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도 ‘所’를 접미사로 처리하고 있다.

16) 그러나 ‘시설’과 ‘기관’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기관 중에는 일정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볼 수 있다.

17) ‘목공, 탁아, 사무, 보건’ 등 일부 어근은 동작성의 의미를 가지지만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표 6> <고대> 등재 ‘所’ 파생어 목록의 일부

감옥소 (監獄所)	목공소 (木工所)	연구소 (研究所)	지휘소 (指揮所)
강습소 (講習所)	발전소 (發電所)	영업소 (營業所)	진료소 (診療所)
개소1 (厓箇所)	변전소 (變電所)	요양소 (療養所)	집회소 (集會所)
거래소 (去來所)	보건소 (保健所)	위안소 (慰安所)	촬영소 (撮影所)
검문소 (檢問所)	보관소 (保管所)	유흥업소 (遊興業所)	출장소 (出張所)
검역소 (檢疫所)	보급소1 (補給所)	이발소 (理髮所)	충전소 (充電所)
관리소 (管理所)	보급소2 (普及所)	인쇄소 (印刷所)	측정소 (測定所)
관제소 (管制所)	보호소 (保護所)	재판소 (裁判所)	탁아소 (託兒所)
광업소 (鑛業所)	분향소 (焚香所)	저유소 (貯油所)	투표소 (投票所)
교도소 (矯導所)	사무소 (事務所)	저장소 (貯藏所)	파출소 (派出所)
구치소 (拘置所)	사업소 (事業所)	접객업소 (接客業所)	판매소 (販賣所)
군역소 (軍醫所)	상담소 (相談所)	정류소 (停留所)	합숙소 (合宿所)
급식소 (給食所)	세탁소 (洗濯所)	정미소 (精米所)	향락업소 (享樂業所)
대피소 (待避所)	수용소 (收容所)	제작소 (製作所)	형무소 (刑務所)
등기소 (登記所)	숙박업소 (宿泊業所)	제철소 (製鐵所)	회의소 (會議所)
매표소 (賣票所)	안내소 (案内所)	조선소1 (造船所)	훈련소 (訓練/訓練所)
면회소 (面會所)	양성소1 (養成所)	주유소 (注油所)	휴게소 (休憩所)
		주재소 (駐在所)	휴양소 (休養所)

아래는 2010년대 신문 자료에서 추출한 ‘所’ 파생어의 예이다. ‘場’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어가 상당수 나타난다. 그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10년대 신문 자료 추출 ‘所’ 결합 미등재어 목록

가공소(加工所)	급전소(急錢所)	문구소(文具所)	수탁소(受託所)	연습소(練習所)	제빵소(製-所)
검시소(檢屍所)	기공소(技工所)	보존소(保存所)	수형소(受刑所)	연주소(演奏所)	조문소(弔文所)
경매소(競賣所)	단련소(鍛鍊所)	복위소(復位所)	순산소(順產所)	요식업소(料食業所)	조성소(造成所)
계측소(計測所)	대여소(貸與所)	복제소(複製所)	신고소(申告所)	용접소(鎔接所)	지도소(指導所)
공예소(工藝所)	등대소(燈臺所)	봉사소(奉仕所)	실습소(實習所)	운영소(運營所)	지령소(指令所)
관찰소(觀察所)	만화소(漫畫所)	봉안소(奉安所)	심판소(審判所)	은둔소(隱遁所)	지옥소(地獄所)
교역소(交易所)	매입소(買入所)	소방소(消防所)	안마소(按摩所)	전습소(傳習所)	충전소(充電所)
구류소(拘留所)	모병소(募兵所)	송전소(送電所)	알현소(謁見所)	절전소(節電所)	침례소(浸禮所)
		송출소(送出所)	양재소(洋裁所)	정산소(精算所)	탁남소(託男所)

18) <고대>에는 ‘所’가 결합된 단어가 총 214개 등재되어 있다.

2) 의미 자질 설정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場’과 ‘所’는 어떤 곳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가지는 의미 자질은 [+장소]이다.¹⁹⁾ 선행 어근에 붙어 어떤 일을 하는 장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수영장’은 ‘수영을 하는 장소’, ‘투표소’는 ‘투표가 벌어지는 장소’의 뜻으로 쓰인다. 또한 그런 장소는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장소라는 점이 특징이다. ‘수영장’의 경우 해엄을 치면서 놀거나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이어야 하고, ‘투표소’는 투표할 수 있도록 칸막이나 투표함 등의 시설이 마련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場’과 ‘所’ 모두 [+시설]의 자질을 갖는다.

한편, ‘연구소, 교도소, 수용소, 구치소, 탁아소, 요양소, 보건소’ 등 ‘所’ 파생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분명하다. 반면, ‘경기장, 주차장, 골프장, 해수욕장, 전시장, 공사장’ 등 ‘場’ 파생어는 ‘기관’과 무관하다. 독립되었거나 부속되었거나 간에 모두 선행 어근이 의미하는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나는 장소를 뜻하며 ‘기관’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場’은 [-기관]의 자질을, ‘所’는 [+기관]의 자질을 갖는다.

한편 ‘場’은 ‘자기장, 전기장, 중력장, 벡터장’ 등에서처럼 ‘자기’나 ‘전기’ 등의 작용이 미치는 일정한 공간이나 영역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영역]의 자질을 갖는다. 반면 ‘소’는 이러한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자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접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ㄱ. 場 : ①[+장소][+시설][-기관] ②[+장소][+영역]
 ㄴ. 所 : [+장소][+시설][+기관]

3. 장소 파생어의 특징

이 장에서는 접미사 ‘場’과 ‘所’가 결합한 파생어들의 특징을 어종의 측

19) 범기독교연구원, 앞의 논문에서는 영업장소를 뜻하는 접미사 ‘店, 房, 館’에 대해 ‘[장소], [영리], [유형물], [건물]’ 등 네 가지 자질로 분류하였다.

면, 단어 형성의 측면과 사용역의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장소 파생어는 선행 어근에 한자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로서, 3음절어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2음절어나 4음절어도 나타난다. 접미사적 요소를 따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예: 名所, 工場)나 파생어의 확장형인 경우(예: 捕虜收容所, 結婚披露宴場) 등은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 선행 어근의 특징

이 절에서는 ‘場’과 ‘所’가 결합하는 어근의 특징을 어종과 자립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종별 분류는 단어의 어원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보통 고유어와 한자어, 서구 외래어 및 혼종어로 나뉘는데, ‘場’과 ‘所’ 파생어의 선행 어근은 한자어가 대부분이다.²⁰⁾ 한자어 접사가 한자 어근과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문 자료에서 등장하는 미등재어도 한자어와 결합한 파생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아래 (6)의 예는 고유어 어근과 결합한 ‘場’ 파생어의 예이다.

- (6)ㄱ. 널뛰기장(---場), 눈썰매장(---場), 뱃놀이장(---場), 씨름장(--場)
 ㄴ. 쓰레기장(---場), 후리장(--場), 이야기장(---場)

(6)ㄱ)의 예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놀이나 경기를 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6)ㄴ)에서 ‘후리장’은 후릿그물을 넓게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어장을 말한다.

아래 (7)은 서구 외래어와 결합한 예이다.

- (7)ㄱ. 샤워장(shower場), 바비큐장(barbecue場), 골프장(golf場), 다이빙장(diving場)
 ㄴ. 카지노장(이.casino場), 이데올로기장(독.Ideologie場), 뷔페장(프.buffet場), 요가장(산.yoga場)
 ㄷ. 레포츠장(레.leisure sports場)

20) <고대>에 등재된 파생어 목록을 살펴보면 한자 어근과 결합한 말이 대부분이다. ‘場’의 경우는 348개 중 332개가 한자 어근과 결합하였고 ‘所’의 경우는 모든 파생어가 한자 어근과 결합하였다.

(7ㄱ)의 예는 선행 어근이 영어임을 알 수 있다. 혼종어 중에서 영어와 결합한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7ㄴ)에서 ‘카지노’는 이탈리아어, ‘이데올로기’는 독일어, ‘뷔페’는 불어, 요가는 산스크리트어에서 각각 온 말이다. (7ㄷ)의 ‘레포즈’는 ‘레저’와 ‘스포츠’가 혼성(blending)의 방식으로 결합한 말이다. 반면 아래 (8)과 같이 일본어와 결합한 예도 찾을 수 있다.

(8) 가라오케장(일.karaoke場), 스모장(일.sumô場)

다음으로 ‘所’ 파생어를 살펴보자. (9)는 고유어와 결합한 예들이다.

(9) 뚝소(-所), 자비소(--所), 정자소(--所)

(9)에서 ‘뚝소’는 <표대>에 따르면 뚝섬에 있었다는 ‘뚝신묘’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자비소’는 건물 입구에 지붕을 내어 차를 대게 만든 곳을 말한다. 이때 ‘자비’는 가마나 남여 따위의 전통적인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고유어이다. ‘정자소’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대궐문 위에서 백관들을 살피던 곳을 말한다.²¹⁾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쓰던 말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다.

‘所’ 파생어가 ‘場’ 파생어와 다른 점은 ‘所’는 외래 어근과 결합한 예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기존 사전 표제어에도 없을 뿐더러 신어 자료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혼종어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은 다음 예를 통해 확인된다.

(10) ㄱ. 서비스업장(service業場), 깜짝쇼장(--show場), 소개팅장(紹介meeting場)

ㄴ. 제빵소(製-所)²²⁾

(10ㄱ)에서 알 수 있듯이 ‘場’과 결합하는 혼종어 어근은 ‘외래어+한자

21) <우리말>, <금성>, <표준> 등에 ‘정자’는 성루를 뜻하는 ‘성자(城子)’를 잘못 표기한 형태로 나와 있다.

22) ‘제빵’은 <표대>나 <고대>에서 형태 정보를 모두 ‘[製-]’으로 제시하고 있어 ‘한자어+고유어’로 이루어진 혼종어로 보았다. 본디 ‘빵’은 포르투갈어 ‘pão’에서 유래한 말이다.

어’ ‘고유어+외래어’, 그리고 한자어와 외래어 혼성어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반면, ‘所’의 경우는 ‘제빵(製-)’이 유일하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場’과 ‘所’의 어종별 파생 방식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두 접사가 한자어 어근에 붙어서 많은 수의 파생어를 형성하지만 생산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특히 ‘場’이 파생어의 수로 보았을 때 ‘所’에 앞선다. 반면 둘 다 고유어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는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다. ‘場’은 다양한 외래 어근과 결합하는 반면, ‘所’는 외래어와 결합한 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접사 ‘所’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혼종어와 결합하는 사례도 ‘場’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所’는 ‘제빵소’ 단 하나의 예밖에 확인하지 못하였다.

‘場’과 ‘所’ 파생어의 선행 어근은 이미 오래 전에 중국 문어를 통해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한자어 어근이 대부분이다. 고유어나 서구 외래어 어근과의 결합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다양한 어종의 어근과도 결합하는 ‘場’에 비해 ‘所’는 고유어나 외래어와 결합하는 예가 드물었다.

다음으로는 선행 어근의 자립성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어근은 자립 어근과 비자립 어근으로 나눈다. 접미사 ‘場’이나 ‘所’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²³⁾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부분의 파생어가 이에 속한다. 반면, 비자립 어근과 결합한 예들도 나타난다. 아래 예를 보자.

- (11) ㄱ. 건하장 [±乾蝦-場], 구판장 [±購販-場], 선유장 [±船留-場], 위판장 [±委販-場]
 ㄴ. 냉암소 [±冷暗-所], 영매소 [±零賣-所], 저목소 [±貯木-所], 흥신소 [±興信-所]²⁴⁾
 ㄷ. 개소 [+個]-所]

(11ㄱ~ㄴ)의 ‘건하’나 ‘구판, 선유, 위판, 냉암, 영매, 저목, 흥신’ 등은

23) 자립 어근과 결합하는 ‘場’ 파생어는 <고대> 표제어 348개 중 336개에 이른다. ‘所’ 파생어는 214개 중 209개가 자립 어근과 결합한다.

24) 여기서 ‘소’는 비자립 어근을 뜻하며 ‘-’는 접미사를 뜻하는 기호이다. 이러한 형태 정보의 표시 방법은 김양진·이현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51(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를 참조하기 바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이다. 전체적으로 자립 어근과 결합한 파생어에 비해 그 수는 미미하다. 신문 자료에서 추출한 미등재어도 자립 어근과 결합한 예가 대부분이다. (11ㄷ)의 ‘개소’에서 ‘個’는 자립 어근이기는 하지만 수를 셀 때 쓰이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다. 그래서 ‘개소’는 ‘1개소, 2개소’처럼 수 관형사 뒤에서 낱말의 장소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이번에는 선행 어근의 의미 부류를 살펴보면 ‘場’과 ‘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장’과 ‘소’ 모두 구체 명사, 추상 명사, 서술성 명사와 모두 결합한다. 수치상으로는 서술성 명사와 가장 빈번하게 결합한다. 반면, 추상 명사와는 그렇지 못하다.

(12) ㄱ. 場

의미 부류	선행 어근
구체 명사	눈썰매/백사/빙벽/스케이트/폴/헬기/암벽/메드민턴/텐트/캠프/카약
추상 명사	위탁
서술성 명사	발사/사형/사위/작업/취사/캠핑/유흥/각축/공론/축구/수영/퍼팅/농구/야구

ㄴ. 所

의미 부류	어근의 의미 부류
구체 명사	사진/도서/미술/박물/사제/오물/온천/만화/등대
추상 명사	과학/복지/철학/지옥
서술성 명사	홍보/체험/개봉/상설/이발/전시/사교/기공/충전/송전/정산/안마/은둔

(12ㄱ), (12ㄴ)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場’과 ‘所’가 추상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서술성 명사나 구체 명사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는 ‘場’과 ‘所’가 장소 접미사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근과 결합할 때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을 선택하는 경향을 띠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사용역별 특징

장소를 나타내는 한자 접미사 중 ‘場’과 ‘所’는 다른 장소 접미사에 비해 일반적, 보편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며 생산성도 높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 사용자 및 문체적 특징에 따른 화용적 양상의 측면에서 유효적인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범기혜·도원영(2012)에서는 영업장소를 뜻하는 ‘店’, ‘房’, ‘館’과 결합한 파생어에 나타나는 사용역의 특징을 살펴면서 이들 접사 간 변별적인 특징이 사용역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남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무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두 접미사 파생어에는 과연 어떤 사용역상의 양상이 나타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역(register)은 시간이나 공간, 사용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유효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변이형을 말한다.²⁵⁾

장소 파생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탄생, 성장, 쇠퇴, 사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전에 없던 공간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어가 탄생하고 제도나 사회 현상의 쇠퇴로 생명력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말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신어의 예를 살펴보자.

- (13) ㄱ. 場: 경륜장, 스키시장, 족욕장, 풋살장, 라켓볼장, 트레킹장, 수능장, 고시장, 엑스포장
 ㄴ. 所: 충전소, 기공소, 시술소, 탁남소

25) 도원영,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우리어문화회, 2008), 48면에서는 9가지 사용 환경에 따라 일반 부류와 그에 대응하는 사용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표제어의 분류_일반 부류와 사용역

기준	일반 부류	사용역
시간	현재어	신어/이전 말/고어
공간	공통어	방언(지역어)
	남한어	북한어
규범성	표준어	비표준어
도구	보편어	문어/구어
화청자 관계	예사말	높임말/낮춤말
사용 계층과 집단	통용어	계층어
태도	일반어	비어/속어/완곡어/욕설/비유어....
사용 범위	일상어	전문어
사용 여부	현실어	희귀어/사어

(13ㄱ)의 ‘場’ 파생어 중에는 ‘경륜장, 스쿼시장, 라켓볼장’ 등 스포츠 경기장을 뜻하는 단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소인 ‘수능장’도 있고 각종 국가 고시를 치르는 ‘고시장’도 등장한다.

(13ㄴ)의 ‘충전소’는 전기를 보충한다는 뜻으로 ‘가스, 전기, 엘피지’ 등과 결합하여 쓰인다. 의미가 확장되어 ‘티머니, 음악’과도 쓰이며 ‘지식’, 행복’과 같은 추상 명사와도 어울려 쓰인다. ‘기공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과 기공소’로 쓰였으나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말이다. ‘시술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마 시술소, 문신 시술소, 침 시술소’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로 ‘무허가 시술소, 불법 시술소’ 등과 같이 부정적인 명사와 어울려 쓰인다. ‘탁남소(託男所)’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말이다. ‘남편을 맡기는 곳’이란 뜻으로 ‘탁아소’를 본떠서 만든 일종의 유행어이다.

반면, 이전부터 쓰였으나 최근에 와서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는 ‘場’, ‘所’ 파생어들도 있다. ‘所’의 경우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을 두루 지칭한다. ‘所’는 역사적으로 나라에서 설립한 관청에 자주 쓰였는데, 정치·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관이나 조직이 사라지면서 파생어의 생명력도 소멸하였다. 교도소의 옛말인 ‘감옥소’, ‘교화소’나 ‘고해소’의 이전말인 ‘고백소’, ‘은행’의 이전말인 ‘은행소’, ‘송신소’의 옛말인 ‘방송소’, ‘종두소’, ‘측후소’ 등이 그러하다. 1920~40년대에 주로 쓰이다가 사라졌다. ‘조판소’나 ‘활판소’처럼 과학 기술과 문화 등이 바뀌면서 존재가 사라져 그 용법도 줄어든 말도 있다. ‘場’의 경우 ‘개항장, 격구장, 미두장’ 등이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장소 명사는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공간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로 보면 일상어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서만 쓰이는 어휘도 있다. ‘감치장, 검시장, 경매장, 구급장, 구류장, 사형장, 형장’이나 ‘공탁소, 구급소, 구치소, 등기소, 세무소’ 등은 법률 전문 용어이다. ‘공판장’이나 ‘입회장’, ‘거래소’ 등은 경제 분야 전문어이다. ‘계선장’이나 ‘물양장’은 해양 분야에서 쓰인다. ‘부선장, 선광장, 저광장, 채석장, 채탄장’, ‘광무소’ 등은 모두 광물을 채취하고 저장하고 다듬는 일과 관련된 장소를

나타낸다. 종교 분야에서 쓰이는 말도 있다. ‘만복소, 예배소, 지성소, 고해소’ 등은 기독교에서 쓰이는 말이며, ‘다비소, 보리소, 연화소, 정재소, 종무소, 해우소’ 등은 불교에서 쓰이는 말이다.

일반어 중에는 표현적, 문체적 특징에 따라 변이형을 가지는 말이 있다. 표현 의도나 태도를 좀 더 분명하고 다양하게 나타내는데, 속어나 비어처럼 통속적이고 저속한 밀이나, 금기시하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등이 이에 속한다.²⁶⁾ ‘場’과 ‘所’ 파생어에는 이런 어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場’과 ‘所’가 장소 명사를 만드는 가장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본고는 장소를 뜻하는 한자어 접미사 중 ‘場’과 ‘所’를 대상으로 의미와 용법을 살펴본 뒤, 각각의 파생어를 분석하여 ‘[장소]’, ‘[시설]’, ‘[기관]’, ‘[영역]’의 네 가지 자질을 통해 두 접미사를 변별하였다. 또한 각각 이들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특징을 선행 어근과 사용역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최근 신문 자료에 등장하는 ‘場’과 ‘所’ 파생어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휘론적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한 부류의 접미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용법을 좀더 세밀히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場’과 ‘所’는 장소 접미사 중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진 접미사이다. 향후 이들과 여타의 장소 접미사와의 자질 비교를 통해 장소 접사 파생어 전체의 의미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후고를 기약한다. 

26) 범기혜·도원영, 앞의 논문에서는 ‘간이 중개소’에 대해 ‘뒤편방’을 속어의 예로, ‘점집’에 대해 ‘철학관’을 완곡어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문헌

1. 참고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중한사전>(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_____,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 20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漢韓大辭典>(서울: 단국대학교 출판사, 2000).
 동아출판사 편, <東亞漢韓大辭典>(서울: 동아출판사, 1982).
 운평어문연구소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서울: 금성출판사, 1991).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서울: 어문각, 1992).
 漢語大詞典出版社 編, <漢語大詞典>(북경: 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曲偉·韓明安 編, <當代漢語新詞詞典>(북경: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4).
 商務印書館 編, <現代漢語新詞語詞典>(북경: 商務印書館, 2005).
 王均熙 編, <當代漢語新詞詞典>(북경: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2. 참고 문헌

- 김양진, 「『문학사(文學史)』의 두 가지 뜻풀이와 형태 분석」,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
표논문집』(한국사전학회, 2009).
 김양진·이현희,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형태 분석 정보」, 『민족문화연구』51(고려
대 민족문화연구원, 2009).
 김창섭,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국립국어원,
1999).
 김청룡, 「한자어 인칭접미사의 사회적 계층성 분석-직업성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 『한
국어의미학』 37(한국어의미학회, 2012).
 김혜령, 『현대 국어 고유어 접사의 의미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나은미, 「의미를 고려한 접미사의 결합 관계 -“이, -개, -질, -꾼”을 대상으로-」, 『한국
어학』 23(한국어학회, 2004).
 노명희,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국어학회, 1997).
 도원영,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0(우리어문
학회, 2008), 33~57면.
 박형익, 「국어 사전에서의 한자어 접미사와 혼종어 접미사」, 『한국어학』 21(한국어학
회, 2003).
 범기혜, 「한자 접두사의 설정과 사전적 처리」, 『한국어의미학』 37(한국어의미학회, 2003).
 범기혜·도원영, 「占, 房, 館의 의미 분석을 통한 영업장소 파생어의 특징」, 『한국어
의미학』 39(한국어의미학회, 2012).
 서정섭,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 『국어문학』 46(국어문화회, 2009).
 이도길·김일환·강범모, 「세종 형태의미 분석 코퍼스를 넘어서-SJ-RIKS Corpus」, 『민족문
화연구』 52(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0).

- 이영자, 「한·중 인칭접미사 ‘자(者), -가(家), -인(人), -사(師)’의 의미 기능 고찰」, 『언어과학연구』 47(언어과학회, 2008).
- 이현희, 「사전 표제어의 형태분석을 위한 1음절 한자 처리 방안 연구」, 『우리어문연구』 32(우리어문학회, 2008).
- 최윤근, 「한자어 형태 범주와 접사 설정 기준」, 『동국어문논집』 8(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99).
- 최형용,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19(한중인문학회, 2006).
- 홍종선·김양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접사 선정의 기준-공시적 분석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4(한국어학회, 1212).

【Abstract】

**Analysis of the Sino-Korean Suffixes “jang(場)” and “so(所)” and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with a Meaning of Place**

Doh, Wonyoung*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emantic features of Sino-Korean suffixes such as ‘jang 場’ and ‘so 所’ an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with a meaning of ‘place.’ First of all, we extracted suffixes of place and derivatives from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newspaper database etc. Also, we analyzed the basic meaning and the semantic features of ‘jang 場’ and ‘so 所.’ Then we examined the lexi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rivatives with regards to the origin of a word, word-formation, and the register. This article also introduced many new compound words from Chinese character roots, combining our knowledge about present usage of them.

〈Key words〉 : Sino-Korean Suffix, place, suffix, root, derivational word,
semantic analysis, word formation, register, lexicology

접수일: 2013.09.30, 심사일: 2013.10.30, 게재확정일: 2013.11.06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